BARUN EDUCATION

文 識 性 · L I T E R A C Y

문식성(文識性) 독해력 훈련 워크북

2019년도
언어논리영역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 기출 기반
문식성(文識性) 독해력 훈련 · 확장판 v5.6

5급공채 2019 · 심화선별권 · 통합본

수록 10개 지문 · 10문항 · 평이하거나 짧은 지문을 걸러낸 심화 선별본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010-9968-1387

차례

각 회차는 훈련 준비 → 5단계 훈련 → 읽기 일지·해설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01 실록·일기·수정실록 — 이름이 다른 이유 [문 1]
인문·역사기록 · 규칙과 사례

02 조선의 형벌 — 매의 수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문 2]
인문·법제사 · 규정과 적용

03 설악산은 언제부터 하나의 산이 되었는가 [문 3]
인문·역사지리 · 자료 대조

04 저금리는 왜 고용을 늘리지 못했는가 [문 4]
사회·거시경제 · 주장과 근거

05 코커스 — 아이오와주는 왜 가장 먼저 투표하는가 [문 5]
사회·정치제도 · 절차와 변천

06 산화질소 — 기체가 신호가 되어 혈관을 넓히기까지 [문 10]
과학·생명과학 · 경로 추적

07 공법 — 같은 1결인데 왜 넓이가 다른가 [문 22]
인문·조세제도 · 문제와 해법

08 유교와 예교 — 근대 중국은 무엇을 비판했는가 [문 23]
인문·사상사 · 개념의 분리

09 신탁 원리 — 연금 가입자는 왜 자기 돈에 손댈 수 없는가 [문 24]
사회·금융제도 · 기원과 귀결

10 투표용지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져 왔는가 [문 25]
사회·선거제도 · 네 방식의 변천

워크북 규격에 따라 제외한 지문

- 난도·분량 기준 제외 — 문 7(미첼의 임계 둘레) : 821자로 수록 지문 중 가장 짧아 한 면 훈련량에 미달, 문 21(정관헌) : 건축물 묘사가 순차적이어서 대조 부담이 낮음, 문 26(대기오염 배출원) : 분류 나열식이라 정보 밀도가 낮음
- 빈칸·배열·어법 수정형(문 6·11·29·31), 밑줄 판단·분석형(문 16) : 지문 전체 독해가 아닌 국소 판단 문항이므로 규격상 제외
- 논리 퀴즈·형식 추론형(문 12·13·14·33·34) : 독해가 아닌 형식 논리 문항이므로 제외
- 〈보기〉 ㄱㄴㄷ 논증평가·강화·사례형(문 8·9·15·17·18·27·28·30·32·35·36·37·38) : 별권(평가·복합권) 대상
- 공유 지문 세트(문 19·20, 문 39·40) : 한 회차 1지문 원칙에 맞지 않아 제외

※ 수록 문항의 정답은 지문 대조로 검증했으나, 학습 전 **공식 정답표**와 한 번 더 대조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1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실록·일기·수정실록 — 이름이 다른 이유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역사기록

설명형 · 규칙과 사례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조선왕조실록 #실록청·일기청 #수정실록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중요 사건들을 정리한 기록물로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 이에 유네스코는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담긴 조선왕조실록 총 1,893권, 888책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실록의 간행 과정은 상당히 길고 복잡했다. 먼저, 사관이 국왕의 공식적 언행과 주요 사건을 매일 기록하여 사초를 만들었다. 그 국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새 왕은 전왕(前王)의 실록을 만들기 위해 실록청을 세웠다. 이 실록청은 사초에 담긴 내용을 취사선택해 실록을 만든 후 해산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록은 전왕의 묘호(廟號)를 붙여 '○○실록'이라고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다보니 『철종실록』이 고종 때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정변으로 왕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뒤를 이은 국왕이 실록청 대신 일기청을 설치하여 물러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을 '○○○일기(日記)'라는 명칭으로 정리해 간행했다. 인조 때 『광해군실록』이 아니라 『광해군일기』가 간행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일기'는 명칭만 '실록'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간행 과정은 그와 동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된 것이다. 『단종실록』은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단종은 계유정난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 노산군으로 불렸고, 그런 이유로 세조 때 『노산군일기』가 간행되었다. 그런데 숙종 24년(1698)에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된 후로 『노산군일기』를 『단종실록』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조선 후기 붕당 간의 대립은 실록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이 등장한 이래,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과 인조 때까지만 해도 붕당 간 대립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 현종, 숙종이 연이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붕당 간 대립이 심해졌다. 효종 때부터는 집권 붕당이 다른 붕당을 폄훼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실록을 수정해 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정된 실록에는 원래의 실록과 구분해 '○○수정실록'이라는 명칭을 따로 붙였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1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가치 제시 → 간행 규칙 → 예외 사례 → 명칭의 변형**

가치 태조부터 _____ 까지의 실록 1,893권 888책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규칙 사관이 사초를 남기면, 뒤를 이은 새 왕이 _____ 을 세워 전왕의 실록을 만든다

▼

예외 정변으로 왕이 바뀌면 일기청이 '○○○일기'로 간행하되 간행 과정은 _____ 했다

▼

변형 노산군일기가 단종실록으로 개칭되고, 붕당 대립 속에 '○○ _____ '이 따로 붙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취사선택**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효종실록』은 현종 때 설치된 실록청이 간행했을 것이다.
② 『노산군일기』는 숙종 때 설치된 일기청이 간행했을 것이다.
③ 『선조수정실록』은 광해군 때 설치된 실록청이 간행했을 것이다.
④ 『고종실록』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⑤ 『광해군일기』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1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① — 글은 새로 즉위한 왕이 실록청을 세워 전왕의 실록을 만든다고 밝힌다. 또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 현종, 숙종이 연이어 왕위에 올랐다고 했으므로 효종의 다음 왕은 현종이다. 따라서 『효종실록』은 현종 때 설치된 실록청이 간행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②일기청은 정변으로 물러난 왕의 기록을 정리하는 기구이며, 『노산군일기』는 세조 때 간행되었다. 숙종 때 있었던 일은 노산군의 복위와 그에 따른 명칭 변경이다. ③수정실록을 만드는 일은 효종 때부터 벌어졌다고 했으므로 광해군 때 간행되었을 수 없다. ④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범위는 태조부터 철종까지이므로 고종 대의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일기'도 간행 과정이 동일하여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실록의 가치와 등재 범위(~"복잡했다.") ② 간행 규칙과 명칭(~"때문이다.") ③ 단종실록이라는 특이 사례(~"되었다.") ④ 붕당 대립과 수정실록(~"붙였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가치: (철종) / 규칙: (실록청) / 예외: (동일) / 변형: (수정실록)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취사선택' = 여럿 가운데 쓸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 고름. 채점 포인트: '고른다'만이 아니라 '버린다'까지 담았는가. 사초 전부가 실록이 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규칙 하나(새 왕이 전왕의 기록을 만든다)를 세워 두고 사례마다 대입하는 회차입니다. 왕의 계승 순서를 글에서 뽑아 선으로 이어 두는 것이 급소. 등재 범위(태조~철종)라는 단서를 놓치면 ④번에 걸립니다.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2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조선의 형벌 — 매의 수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법제사

설명형 · 규정과 적용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평문·형문 #태형·장형 #신장·성장·국장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조선 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피의자로부터 죄를 자백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죄인이 자백을 한 경우에만 형이 확정되었다. 관리들은 자백을 받기 위해 심문을 했는데, 대개 말로 타일러 자백을 받아내는 '평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틸 때에는 매를 쳐 자백을 받는 '형문'을 시행했다. 형문 과정에서 매를 칠 때에는 한 번에 30대를 넘길 수 없었고, 한 번 매를 친 후에는 3일이 지나야만 다시 매를 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번 매를 친 후에는 형문으로 더 이상 매를 칠 수 없었다. 평문이나 형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본형으로 매를 맞을 사람에게는 형문 과정에서 맞은 매의 수만큼 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 형문과 본형에서 맞은 매의 합계가 그 죄의 대가로 맞도록 규정된 수를 초과할 수 없었다. 형문과 본형을 막론하고, 맞는 매의 종류는 태형과 장형으로 나뉘어졌다. 태형은 길고 작은 매를 사용해 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겨서 때릴 수 없었다. 태형보다 더 큰 매로 치는 장형은 '곤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죄목에 따라 60대부터 10대씩 올려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 장형을 칠 때, 대개는 두께가 6밀리미터 정도인 '신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그런데 종이 상전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신장보다 1.5배 정도 더 두꺼운 '성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매를 쳤다. 또 반역죄와 같이 중한 죄인을 다룰 때에는 더 두꺼운 '국장'을 사용하였다. 매를 때리다가 피의자가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책임자를 파직하거나 그로 하여금 장례 비용을 내게 했다. 단, 반역죄인에게 때리는 매의 수에 제한은 없었고, 형문이나 본형 도중 반역죄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조선 시대에는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를 처벌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60대를 쳤다. 그런데 재범이거나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탈했을 때에는 처벌이 더 엄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처벌로는 100대를 때렸다.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의 경우 형문할 때와 본형으로 처벌할 때 택하는 매의 종류가 같았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심문 절차 → 매 수의 제한 → 매의 종류와 도구 → 죄목별 적용**

절차 자백이 있어야 형이 확정되며, 말로 타이르는 평문과 매를 치는 _____ 이 있었다

▼

제한 형문은 한 번에 30대·3일 간격·두 번까지, 형문과 본형의 합계는 규정된 수를 _____ 못 한다

▼

종류 50대를 넘길 수 없는 태형과, 60대부터 _____ 대까지 치는 장형으로 나뉜다

▼

적용 강탈 초범은 60대, 재범이나 _____ 이상 무리는 100대 — 형문과 본형의 매 종류가 같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평문**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피의자가 평문을 받다가 사망하면 심문한 사람이 장례 비용을 내야 했다.
② 세 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는 장형으로 처벌했다.
③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백을 받지 않고 국장으로 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④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로 형문을 받는 종은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
⑤ 평문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면 본형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였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2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② — 마지막 단락에서 재범이거나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탈한 경우 100대를 때렸다고 했다. 태형은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길 수 없고, 60대부터 100대까지 치는 것은 장형이다. 따라서 100대를 때리는 이 처벌은 장형에 해당한다. 오답: ①책임자를 파직하거나 장례 비용을 물리는 규정은 '매를 때리다가' 피의자가 죽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평문은 말로 타이르는 심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어떤 경우라도 자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했으므로 반역 혐의자라고 해서 자백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국장은 매를 치는 도구일 뿐이다. ④상전의 명을 어긴 종이 맞는 매의 수는 글에 없다. 성장은 종이 상전을 '다치게 했을 경우'의 도구이며, 도구의 두께와 매의 수는 별개다. ⑤자백이 이루어지면 범죄 사실이 확정되어 본형이 집행된다. 자백이 처벌 면제의 사유라는 서술은 없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자백과 평문·형문의 절차(~"칠 수 없었다.") ② 본형과 매 수의 제한(~"초과할 수 없었다.") ③ 태형·장형과 매의 도구, 사망 시 책임(~"규정도 없었다.") ④ 재물 강탈에 대한 적용(~"같았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절차: (형문) / 제한: (초과하지) / 종류: (100) / 적용: (세 사람)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평문' = 매를 쓰지 않고 말로 타일러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 채점 포인트: '매를 치지 않는다'는 대비를 형문과 나란히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숫자 규정이 겹겹이 쌓인 회차입니다. 30대·3일·두 번, 50대·60~100대, 초범 60대·재범 100대를 표로 옮겨 놓지 않으면 선지에서 헷갈립니다. 도구의 두께(신장·성장·국장)와 매의 수를 뒤섞은 ④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3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설악산은 언제부터 하나의 산이 되었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역사지리

설명형 · 자료 대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설악산·천후산·한계산 #여지도 #대동지지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조선 시대에 설악산이라는 지명이 포함하는 영역은 오늘날의 그것과 달랐다. 오늘날에는 대청봉, 울산바위가 있는 봉우리,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를 하나로 묶어 설악산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조선 시대의 자료 중에는 현재의 대청봉만 설악산이라고 표시하고 울산바위가 있는 봉우리는 천후산으로, 그리고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는 한계산으로 표시한 것이 많다. 요즘 사람들은 설악산이나 계룡산과 같이 잘 알려진 산에 수많은 봉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의 봉우리는 다른 봉우리와 구별된 별도의 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런 생각은 조선 전기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18세기에는 그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지도인 『여지도』에는 오늘날 설악산이라는 하나의 지명으로 포괄되어 있는 범위가 한계산과 설악산이라는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지도에 표시된 설악산의 범위와 한계산의 범위를 합치면 오늘날 설악산이라고 부르는 범위와 동일해진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제작된 『비변사인 방안지도 양양부 도엽』이라는 지도에는 설악산, 천후산, 한계산의 범위가 모두 따로 표시되어 있고, 이 세 산의 범위를 합치면 오늘날의 설악산 범위와 같아진다. 한편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조선팔도지도』에는 오늘날과 동일하게 설악산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 '설악산'이라는 명칭만 적혀 있다. 이 지도에는 한계산과 천후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김정호는 『대동지지』라는 책에서 "옛날 사람들 중에는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를 한계산이라고 부른 이도 있었으나, 사실 한계산은 설악산에 속한 봉우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였다. 현종 때 만들어진 『동국여지지』에는 "설악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한계산이라 부르는 봉우리를 설악산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악산 안에 있는 봉우리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김정호는 이를 참고해 『대동지지』에 위와 같이 썼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팔도지도』에는 천후산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조선 전기에 천후산이라고 불리던 곳을 대청봉과 동떨어진 별도의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3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인식의 차이 → 인식의 변화 → 지도별 대조 → 문헌의 근거**

차이 고려~조선 전기에는 하나의 봉우리를 _____ 된 별도의 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

변화 18세기에 인식이 바뀌기 시작 — 『여지도』는 _____ 개 권역, 방안지도는 세 개 권역

▼

대조 『조선팔도지도』에는 오늘날과 같은 범위에 _____ 이라는 명칭만 적혀 있다

▼

근거 『동국여지지』의 현지 인식을 참고해 김정호는 한계산이 설악산에 속한 _____ 라고 썼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포괄**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여지도』에 표시된 설악산의 범위와 『대동지지』에 그려져 있는 설악산의 범위는 동일하다.
② 『동국여지지』에 그려져 있는 설악산의 범위와 『조선팔도지도』에 표시된 설악산의 범위는 동일하다.
③ 『조선팔도지도』에 표시된 대로 설악산의 범위를 설정하면 그 안에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가 포함된다.
④ 『대동지지』와 『비변사인 방안지도 양양부 도엽』에는 천후산과 한계산이 서로 다른 산이라고 적혀 있다.
⑤ 『여지도』에 표시된 천후산의 범위와 『비변사인 방안지도 양양부 도엽』에 표시된 천후산의 범위는 동일하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3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③ — 『조선팔도지도』에는 오늘날과 동일하게 설악산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청봉, 울산바위가 있는 봉우리,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를 하나로 묶어 설악산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 지도의 설악산 범위 안에는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가 포함된다. 오답: ①『여지도』의 설악산 범위는 한계산과 나뉜 절반이고, 『대동지지』는 한계산을 설악산에 속한 봉우리로 보았으므로 두 범위는 다르다. 게다가 『대동지지』는 지도가 아니라 책이다. ②『동국여지지』 역시 책이며, 설악산의 범위를 그려 놓았다는 서술은 없다. ④『대동지지』는 한계산이 설악산에 속한 봉우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므로 두 산을 서로 다른 산으로 적었다고 볼 수 없다. ⑤『여지도』에는 설악산과 한계산 두 권역만 표시되어 있어 천후산의 범위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오늘날과 조선 시대의 인식 차이(~"이어졌다.") ② 18세기 지도들의 대조(~"등장하지 않는다.") ③ 문헌의 근거와 해석(~"뜻한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차이: (구별) / 변화: (두) / 대조: (설악산) / 근거: (봉우리)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포괄' = 여럿을 하나로 묶어 안에 싸안음. 채점 포인트: '여러 봉우리를 한 이름 안에 담는다'는 뜻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자료가 다섯 개(여지도·방안지도·조선팔도지도·대동지지·동국여지지) 나오고, 각각 몇 개의 산을 인정하는지가 다릅니다. 자료별로 '설악·천후·한계'에 O와 X를 매기며 읽는 것이 급소. 지도와 책을 뒤바꾼 선지도 함께 걸러내세요.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4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저금리는 왜 고용을 늘리지 못했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거시경제

논증형 · 주장과 근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연방준비제도 #저금리 정책 #설비 가동률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고용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입안한다 해도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거품과 불평등만 부풀릴 것이다. 기술 산업의 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2000년대 초에 연준이 시행한 저금리 정책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변동이 투자와 소비의 변화를 통해 경기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수단이 훨씬 더 효과적인 상황도 많다. 가령 부동산 거품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금리 인상보다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합리적이다.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라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은행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 말고는 경기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부문에서 설비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라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생산적인 투자가 별로 증대하지 않는다. 2000년대 초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저금리 정책은 생산적인 투자 증가 대신에 주택 시장의 거품만 초래한 것이다. 금리 인하는 국공채에 투자했던 퇴직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켰다. 노년층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금융업으로 부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져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다양한 경로로 소비를 위축시켰다. 은퇴 후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자녀의 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은 저축을 늘렸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주가 상승에 따라 발생한 이득은 대체로 부유층에 집중되었으므로 대대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2000년대 초 고용 증대를 기대하고 시행한 연준의 저금리 정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투자를 증대시켰다. 인위적인 저금리로 자본 비용이 낮아지자 이런 기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생겨났다. 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인데도 노동을 절약하는 방향의 혁신이 강화되었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인데도 가게들은 계산원을 해고하고 자동화 기계를 들여놓았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4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주장 제시 → 효과 없는 이유 → 분배의 왜곡 → 고용의 역설**

주장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거품과 _____ 만 부풀린다

▼

이유 설비 가동률이 낮으면 금리를 내려도 생산적 투자가 늘지 않고 _____ 의 거품만 생긴다

▼

왜곡 국공채에 투자한 퇴직자의 소득 감소 → 노년층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_____ 으로 부가 이동

▼

역설 자본 비용이 낮아지자 노동을 _____ 으로 대체하는 투자가 늘어 실업률이 굳어졌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설비 가동률**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공채에 투자한 퇴직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금융업으로부터 정부로 부가 이동하였다.
② 2000년대 초 연준은 고용 증대를 기대하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용 증대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었다.
③ 2000년대 초 기술 산업 거품의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 설비 가동률은 대부분의 부문에서 낮은 상태였다.
④ 2000년대 초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한 후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은 상승하였다.
⑤ 금리 인상은 부동산 거품 대응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4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① —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글은 금리 인하로 노년층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금융업으로 부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①은 그 방향을 뒤집어 금융업으로부터 정부로 부가 이동했다고 진술하므로 글과 어긋난다. 오답: ②저금리 정책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투자를 늘려, 경기가 회복되어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③2000년대 초가 바로 대부분의 부문에서 설비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주택 시장의 거품이 초래되었고 금리 인하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다고 했으므로 두 가격 모두 올랐다. ⑤부동산 거품에는 금리 인상보다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주장과 사례 예고(~"잘 보여준다.") ② 금리보다 나은 수단(~"때문이다.") ③ 저금리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초래한 것이다.") ④ 분배의 왜곡과 소비 위축(~"이어지지 않았다.") ⑤ 고용의 역설(~"만들어진 것이다.") **4~5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주장: (불평등) / 이유: (주택 시장) / 왜곡: (금융업) / 역설: (자본)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설비 가동률' = 갖춰 둔 생산 설비 가운데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몫의 비율. 채점 포인트: '있는 설비 중 얼마나 쓰이는가'라는 뜻을 담았는가. 낮으면 새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함의까지 적으면 더 좋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하나의 정책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과정을 네 갈래로 좇는 회차입니다. 부정 발문이라 '맞는 말'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 두면 ①번이 곧바로 보입니다.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5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코커스 — 아이오와주는 왜 가장 먼저 투표하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정치제도

설명형 · 절차와 변천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코커스 #전당대회 #구속력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미국 대통령 후보 선거제도 중 '코커스'는 정당 조직의 가장 하위 단위인 기초선거구의 당원들이 모여 상위의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원회의이다. 대의원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먼저 밝힌다. 상위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은 각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선출된다. 코커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다시 다음 수준인 의회선거구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여기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州)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선출해내고, 거기서 다시 마지막 단계인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주에 따라 의회선거구 전당대회는 건너뛰기도 한다. 1971년까지는 선거법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5월 둘째 월요일까지 코커스를 개최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1972년부터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전당대회를 7월 말에 개최하도록 결정하면서 1972년 아이오와주 민주당의 코커스는 그 해 1월에 열렸다. 아이오와주 민주당 규칙에 코커스, 카운티 전당대회, 의회선거구 전당대회, 주 전당대회, 전국 전당대회 순서로 진행되는 각급 선거 간에 최소 30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이 1976년부터 코커스 개최시기를 1월로 옮기면서, 아이오와주는 미국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가장 먼저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가 되었다. 아이오와주의 선거 운영 방식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차이가 있었다. 공화당의 경우 코커스를 포함한 하위 전당대회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여 당선된 대의원이 상위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그러한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공화당 역시 상위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에게 같은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기층 당원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 전당대회에 참여할 주(州) 대의원 선출에 반영되도록 했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5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제도 정의 → 단계별 절차 → 일정이 앞당겨진 경위 → 정당 간 차이**

정의 기초선거구 당원들이 모여 상위 전당대회에 보낼 _____ 을 뽑는 당원회의

▼

절차 코커스 → 카운티 → 의회선거구 → 주 → _____ 전당대회로 단계가 이어진다

▼

경위 전국 전당대회가 7월 말로 옮겨지고 각 단계마다 최소 _____ 일 간격 규정이 있었다

▼

차이 민주당은 상위 대회에서 같은 후보를 지지할 _____ 을 부여했고 공화당은 2016년부터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구속력**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주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모두 의회선거구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었다.

② 1971년까지 아이오와주보다 이른 시기에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는 없었다.

③ 1972년 아이오와주 민주당의 주 전당대회 선거는 같은 해 2월 중에 실시되었다.

④ 1972년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코커스와 공화당 코커스는 같은 달에 실시되었다.

⑤ 1976년 아이오와주 공화당 코커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대의원은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5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공화당의 경우 코커스를 포함한 하위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당선된 대의원이 상위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구속력이 부여된 것은 2016년부터라고 했다. 1976년은 그 이전이므로 그해 아이오와주 공화당 코커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대의원은 다음 단계인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었다. 오답: ①주에 따라 의회선거구 전당대회를 건너뛰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모두' 그곳에서 선출된 것은 아니다. ②1971년까지는 두 정당 모두 5월 둘째 월요일까지 코커스를 열면 되었을 뿐, 아이오와주가 가장 일렀다는 근거는 없다. ③1972년 민주당 코커스가 1월에 열렸고 각 단계마다 최소 30일 간격이 필요하므로, 카운티와 의회선거구 대회를 거쳐야 하는 주 전당대회가 2월 중에 열릴 수는 없다. ④공화당이 코커스를 1월로 옮긴 것은 1976년부터이므로 1972년에는 두 정당의 개최 시기가 달랐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코커스의 정의와 단계별 절차(~"건너뛰기도 한다.") ② 일정이 앞당겨진 경위(~"주가 되었다.") ③ 두 정당의 운영 방식 차이(~"반영되도록 했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정의: (대의원) / 절차: (전국) / 경위: (30) / 차이: (구속력)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구속력' = 한 번 정해진 지지를 다음 단계에서도 바꾸지 못하게 묶어 두는 힘. 채점 포인트: '반드시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연도(1971·1972·1976·2016)와 단계(코커스부터 전국 전당대회까지)라는 두 축을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회차입니다. 연표를 그려 두면 ④번의 시점 착오가 보입니다. 30일 간격 규정으로 ③번을 계산해 보는 것도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6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산화질소 — 기체가 신호가 되어 혈관을 넓히기까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과학·생명과학

설명형 · 경로 추적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기체 신호물질 #산화질소 #표적세포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생체에서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것에는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이 있다. 이 신호물질이 작용하는 표적세포는 신호물질을 만든 세포에 인접한 세포 중 신호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신호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은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 세포가 있는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인 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 먼저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하는 자극이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작용한다. 이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산화질소 합성효소는 그 세포 내에 있는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인접한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표적세포 안에 있는 'A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A 효소는 표적세포 안에서 cGMP를 생성하고, cGMP는 표적세포의 상태를 변하게 한다. 결국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가 변함에 따라 표적세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혈관의 팽창은 산화질소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리적 현상이다.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공간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내피세포층이 감싸고 있다. 이 내피세포층의 바깥쪽은 혈관 평활근세포로 된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감싸고 있다. 혈관이 팽창되기 위해 먼저 혈관의 내피세포는 혈관의 팽창을 유도하는 자극을 받는다. 이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내에서 cGMP를 생성한다. cGMP의 작용으로 수축되어 있던 혈관 평활근세포가 이완되고 결국에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팽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화질소의 기능 때문에 산화질소를 내피세포—이완인자라고도 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10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원리 제시 → 산화질소의 작용 경로 → 혈관 팽창이라는 사례**

원리 신호물질은 인접한 세포 중 _____ 를 가진 표적세포에 작용해 조직의 상태를 바꾼다

▼

생성 자극 → 산화질소 합성효소 활성화 → 세포 내 _____ 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 생성

▼

전달 산화질소가 표적세포 수용체와 결합 → A 효소 활성화 → _____ 생성 → 상태 변화

▼

사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혈관 _____ 세포를 이완시켜 혈관이 팽창한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표적세포**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① cGMP는 혈관 평활근육 조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② 혈관의 내피세포는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다.
③ 혈관 평활근세포에서 A 효소가 활성화되면 혈관 팽창이 일어난다.
④ A 효소는 표적세포에서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
⑤ 혈관 평활근세포는 내피세포ㅡ이완인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6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④ —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만드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산화질소 합성효소'이며, 그 반응은 신호물질을 만드는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 A 효소는 산화질소가 표적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한 뒤 그 표적세포 안에서 활성화되어 cGMP를 만드는 효소다. ④는 두 효소의 역할과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뒤바꿨다. 오답: ①cGMP가 혈관 평활근세포를 이완시키고 그 결과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이완된다고 했다. ②혈관 팽창의 자극을 받아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므로 내피세포는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다. ③산화질소가 평활근세포에 작용해 cGMP가 생성되는데, 앞서 cGMP는 A 효소가 만든다고 했으므로 A 효소의 활성화는 혈관 팽창으로 이어진다. ⑤산화질소가 곧 내피세포-이완인자이며, 평활근세포는 그 신호물질에 반응하는 표적세포이므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기체 신호물질의 일반 원리(~"유도한다.") ② 산화질소의 작용 경로(~"변하게 된다.") ③ 혈관 팽창이라는 사례(~"이완인자라고도 한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원리: (수용체) / 생성: (아르기닌) / 전달: (cGMP) / 사례: (평활근)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표적세포' = 신호물질이 겨냥해 작용하는, 그 물질의 수용체를 가진 세포. 채점 포인트: '수용체가 있어야 표적이 된다'는 조건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이름이 낯선 물질들이 한 줄로 이어진 경로를 그리는 회차입니다. 자극 → 합성효소 → 산화질소 → 수용체 → A 효소 → cGMP → 조직 변화를 화살표로 옮겨 적으면 ④번처럼 순서를 바꿔치기한 선지가 곧바로 보입니다.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7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공법 — 같은 1결인데 왜 넓이가 다른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조세제도

설명형 · 문제와 해법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결 #답험손실법 #공법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조선 시대에는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는데, 건국 초에는 면적 단위 1결마다 거두도록 규정된 조세량이 일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다. 생산성이 좋은 농지를 가진 자는 정해진 액수만 내면 남은 양에 상관없이 그 모두를 가질 수 있었던 반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가진 자는 수확량이 적어 정해진 세액도 못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든 농지를 결이라는 동일한 크기의 면적으로 나누고 결마다 같은 액수의 조세를 받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조선 왕조는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작황을 살핀 후 적당히 세액을 깎아주는 '답험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답험손실법에 따라 작황을 살펴보는 행위를 '답험'이라고 불렀다. 답험 실행 주체는 농지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국가에 조세를 내야 하는 땅은 그 농지가 위치한 곳의 지방관이 답험을 했다. 또 과전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 대신 조세를 받는 사람이 지정된 땅의 경우에는 권리 수급자가 직접 답험을 했다. 그런데 답험 과정에서 지방관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제대로 답험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일어났다.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조세 개혁에 관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결당 세액을 고정하는 대신, 중앙 관청이 모든 토지의 작황을 일괄적으로 답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은 이 초안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함경도 농민들은 1결마다 부과할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지만, 전라도 농민들은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라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고, 함경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자 세종은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하되, 전국의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 하였다. 6등전과 1등전의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0.4였다. 한편 세종은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 농지의 생산성과 연도별 작황을 감안해 세액과 결을 조정한 제도를 '공법'이라고 부른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2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문제 제기 → 1차 보완과 그 한계 → 여론의 엇갈림 → 최종 해법**

문제 모든 농지를 같은 크기의 _____ 로 나누고 같은 세액을 매겨 불만이 생겼다

▼

보완 작황을 살펴 세액을 깎아주는 _____ 을 시행했으나 뇌물과 부실 답험이 문제였다

▼

여론 생산성이 높은 _____ 농민은 찬성, 생산성이 낮은 함경도 농민은 반대했다

▼

해법 세액은 고정하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결의 _____ 을 달리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답험**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공법에 따르면 같은 군현 안에 있고 농지 절대 면적의 총합이 동일한 마을들 중 1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이 2등전만 있는 마을의 조세 납부 총액보다 많아진다.

② 공법 시행 후에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은 1결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같은 액수의 조세를 냈다.

③ 절대 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공법 시행 후에는 1등전만 있는 마을이 2등전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 수가 더 적어졌다.

④ 과전법에 의해 조세를 국가 대신 받는 개인은 공법 시행으로 매년 그 땅의 작황을 조사해 중앙 관청에 보고해야 했다.

⑤ 세종의 초안대로라면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은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보다 많아진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7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① — 공법에서는 1결당 세액을 같은 액수로 고정하되, 비옥한 땅일수록 1결의 절대 면적을 작게 잡았다.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0.4다. 따라서 절대 면적의 총합이 같은 두 마을을 비교하면, 1등전만 있는 마을은 결의 수가 더 많아지고 결당 세액이 같으므로 조세 총액도 더 많아진다. 같은 군현이라면 결당 세액도 같으므로 비교가 성립한다. 오답: ②결당 세액은 도 관찰사가 매년 작황을 조사해 군현별로 조정했으므로 지역과 해에 따라 달라진다. ③1등전은 1결의 면적이 작으므로 같은 절대 면적에서 결의 수가 더 '많아'진다. ④매년 작황을 조사하는 주체는 도 관찰사이며, 과전법 수급자의 답험은 공법 이전의 제도에 관한 서술이다. ⑤세종의 초안은 결당 세액을 고정하는 것이므로 생산성이 낮은 함경도가 유리해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때문에 함경도 농민이 반대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결당 정액 과세와 그 불만(~"생긴 문제였다.") ② 답험손실법과 그 폐단(~"일어났다.") ③ 세종의 초안과 엇갈린 여론, 공법의 성립(~"부른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문제: (결) / 보완: (답험손실법) / 여론: (전라도) / 해법: (면적)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답험' = 관리가 직접 논밭에 나가 그해 작황을 살펴보는 일. 채점 포인트: '직접 나가 살핀다'는 현장성을 담았는가. 그래서 뇌물이 오갔다는 점까지 적으면 좋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1결'이 넓이가 아니라 세금의 단위라는 발상의 전환이 열쇠인 회차입니다. 절대 면적이 같을 때 등급별 결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나눗셈을 해 보세요. 방향을 뒤집은 ③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8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유교와 예교 — 근대 중국은 무엇을 비판했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사상사

논증형 · 개념의 분리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예교 #명교·강상 #캉유웨이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유교는 그 근본 정신과 행위 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 규범으로서의 유교를 '예교(禮敎)'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예교는 유교의 일부분이었지만,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유교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유교 신봉자들에게 예교는 유교적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었고, 예교를 통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생활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유교적 가치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규율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와 예교는 원리적으로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유교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유교'라고 일컫고, 유교의 행위 규범은 '예교'라고 일컫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예교와 법(法)이 구분되었다. 법이 강제적이며 외재적 규율이라면, 예교는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규율이다. '명교(名敎)'와 '강상(綱常)'은 예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둘 다 예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명교는 말 그대로 '이름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에 걸맞도록 행동하라는 규범이었다. 강상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함께 일컫는 말로, 예교의 가르침 중 최고의 준칙이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등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을 규정한 것이었다.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는 유학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었다. 오상이 유교적 가치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명교와 삼강은 현실적 이름, 신분, 성별에 따른 행위 규범이었다. 이 때문에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유교 비판은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의미가 내포된 예교 규칙인 명교와 삼강에 집중되었다. 이름이나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은 분명 평등과 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교와 예교를 분리시켰던 사람들은 캉유웨이(康有爲)를 비롯한 변법유신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의 정치 제도를 변경시켜서 입헌군주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예교를 해체하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캉유웨이는 유교 자체를 공격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자의 원래 생각을 중심으로 유교를 재편하기 위해 예교가 공자의 원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라 캉유웨이에게 유교와 예교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되었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3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개념 구분 → 예교와 법의 대비 → 하위 개념 정리 → 비판의 표적**

구분 유교의 근본 정신을 '유교', 행위 규범을 ' _____ '라 부르기로 한다

▼

대비 법이 강제적·외재적 규율이라면, 예교는 자발적이고 _____ 인 규율이다

▼

정리 명교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 강상은 _____ 과 오상을 아우르는 최고의 준칙

▼

표적 평등과 민주에 어긋나는 명교·삼강에 비판이 집중되고, _____ 는 유교와 예교를 갈랐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예교**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유교와 예교를 분리하여 이해했던 사람들은 공자 정신을 비판했다.
② 삼강은 신분과 성별에 따른 우열을 옹호하는 강제적이고 외재적인 규율이었다.
③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생활 속에서 유교적 가치를 체험했다.
④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유교의 행위 규범에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⑤ 명교는 유교적 근본 정신을 담은 규율이었기 때문에 근대의 예교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가치로 재발견되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8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④ —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유교 비판은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의미가 담긴 예교 규칙, 곧 명교와 삼강에 집중되었고, 그 이유는 이름이나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이 평등과 민주의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교와 삼강은 예교, 곧 유교의 행위 규범이므로 ④는 글에서 알 수 있다. 오답: ①캉유웨이는 유교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자의 원래 생각을 중심으로 유교를 재편하기 위해 예교가 공자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②삼강은 예교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예교는 법과 달리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규율이라고 했다. 강제적·외재적인 것은 법이다. ③중국인들이 생활 안에서 직접 경험한 유교적 가치는 법이 아니라 예교라는 구체적 규율이었다. ⑤명교는 근대의 비판이 집중된 대상이지 예교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가치로 재발견된 것이 아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유교와 예교의 구분과 용어 약속(~"일컫기로 한다.") ② 예교와 법, 명교와 강상(~"행위 규범이었다.") ③ 근대의 비판과 캉유웨이(~"구별되는 것이 되었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구분: (예교) / 대비: (내면적) / 정리: (삼강) / 표적: (캉유웨이)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예교' = 유교의 근본 정신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규범. 채점 포인트: '정신'과 '규범'의 층위 구분을 담았는가. 신봉자에게는 곧 유교 자체로 느껴졌다는 점까지 적으면 좋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유교-예교-명교-강상-삼강-오상이라는 개념이 포함 관계로 겹쳐 있는 회차입니다. 큰 원 안에 작은 원을 그려 넣듯 정리하지 않으면 선지가 층을 바꿔치기했을 때 걸립니다. 법과 예교의 대비(외재/내면)가 ②번의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9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신탁 원리 — 연금 가입자는 왜 자기 돈에 손댈 수 없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금융제도

논증형 · 기원과 귀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신탁 원리 #수탁자 책임 #유동성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연금 제도의 금융 논리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는 중세에서 비롯된 신탁 원리다. 12세기 영국에서는 미성년 유족(遺族)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유언을 통해 자식에게 토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성년 유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면서 신탁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재산을 맡긴 성인 귀족,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 유족, 그리고 미성년 유족을 대신해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제3자로 구성되는 관계, 즉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로 구성되는 관계가 등장했다. 이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성년 유족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권을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 했다는 점이다. 즉 신탁 원리 하에서 수익자는 재산에 대한 운용 권리를 모두 수탁자인 제3자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의 지위는 불안정했다. 연금 제도가 이 신탁 원리에 기초해 있는 이상, 연금 가입자는 연기금 재산의 운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신탁의 본질상 공.사 연금을 막론하고 신탁 원리에 기반을 둔 연금 제도에서는 수익자인 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신탁 원리는 수익자의 연금 운용 권리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대신 연금 운용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수탁자 책임'이라는, 논란이 분분하고 불분명한 책임이 부과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의 적절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수탁자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중세에서 기원한 신탁 원리가 연금 제도와 연금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신탁 원리의 영향으로 인해 연금 가입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철저하게 제한되어 왔다. 그 결과 연금 가입자는 자본 시장의 최고 원리인 유동성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으며, 결국 연기금 운용자인 수탁자의 재량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4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기원 제시 → 세 당사자 관계 → 연금으로의 적용 → 오늘날의 귀결**

기원 12세기 영국에서 미성년 유족에게 _____ 를 이전할 수 없어 신탁이 생겨났다

▼

관계 재산을 맡긴 위탁자, 물려받은 _____ , 대신 운용하는 수탁자의 세 자리

▼

적용 연금 가입자는 수익자이므로 적극적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고, 대신 _____ 책임이 부과된다

▼

귀결 가입자는 자본 시장의 최고 원리인 _____ 을 누리지 못하고 수탁자의 재량에 종속된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수탁자**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① 사적 연금 제도의 가입자는 자본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지 않아도 수탁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③ 연금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기금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
④ 신탁 제도는 미성년 유족에게 토지 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이전될 수 없었던 중세 영국의 상황 속에서 생겨났다.
⑤ 연금 제도가 신탁 원리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익자보다 재산 운용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9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③ —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글의 인과는 신탁의 본질상 수익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방향이다. ③은 이 순서를 뒤집어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말하므로 글에서 알 수 없다. 오답: ①연금 가입자는 공·사 연금을 막론하고 유동성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다고 했다. ②귀족들이 친구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신탁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했으므로 혈연 관계가 조건은 아니다. ④12세기 영국에서 미성년 유족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신탁이 생겨났다고 명시되어 있다. ⑤수익자의 운용 권리는 현저히 약화되고 연금 운용은 수탁자에게 맡겨지므로, 수탁자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신탁의 기원과 세 당사자(~"지위는 불안정했다.") ② 연금에의 적용과 수탁자 책임(~"이루어지지는 못했다.") ③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귀결(~"되고 말았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기원: (토지에 대한 권리) / 관계: (수익자) / 적용: (수탁자) / 귀결: (유동성)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수탁자' = 남의 재산을 맡아 대신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 채점 포인트: '내 재산이 아닌데 내가 굴린다'는 구조를 담았는가. 위탁자·수익자와 나란히 적으면 더 좋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800년 전의 제도가 오늘의 연금을 규정한다는 논지를 따라가는 회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뒤집은 ③번이 급소이므로, 읽으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었는가'를 화살표로 고정해 두세요.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10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투표용지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져 왔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선거제도

설명형 · 네 방식의 변천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추첨제 #의석 순위 #공직선거법

나의 예측 (한 문장)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1950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부터 1969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까지는 투표용지상의 기호가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배정되는 A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때에는 투표용지에 오늘날과 같은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대신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숫자를 사용하였다. 다만 1963년 제3공화국의 출범 후에는 '선거구별 추첨제'가 '전국 통일 추첨제'로 변경되었다. 즉, 선거구별로 후보자 기호를 추첨하던 것을 정당별로 추첨하는 제도로 바꾸어, 동일 정당의 후보자들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기호를 배정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969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순으로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배정하는 B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현재와 같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투표용지 관련 제도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이다. 다만, 당시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 순위'라는 기준은 2개의 정당에게만 적용되었다. 원내 의석이 3순위 이하인 기타 정당의 후보자에게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순서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순서 부여는 의석수 상위 2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나머지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81년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다시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C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때 순위 결정은 전국 통일 추첨제가 아닌 선거구별 추첨제를 따랐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앞 번호를 배정받았다. 이 방식에는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으로 정하고, 현재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9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5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A 추첨 → B 의석순 → C 재추첨 → D 현행 방식**

A 1950~1969년, 추첨으로 기호를 배정하고 _____ 숫자를 사용했다

▼

B 1969년부터 의석 _____ 개 정당에 1·2를, 그 밖의 정당에는 명칭 가나다순을 부여했다

▼

C 1981년부터 선거구별 추첨으로 돌아갔으나 정당 후보자가 _____ 후보자보다 앞 번호

▼

D 현행 — 의석 있는 정당 → 의석 없는 정당(_____ 순) → 무소속(추첨) 순서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게재 순위**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A 방식에서 '가'씨 성을 가진 후보자는 'ㅣ'로 표기된 기호를 배정받는다.
② B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2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당 명칭에 따라 기호 '1'을 배정받을 수 있다.
③ C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3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들은 동일한 기호를 배정받는다.
④ B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가 배정받는 기호는 동일하다.
⑤ C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에 비해 앞 번호 기호를 배정받는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10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C 방식에서는 추첨으로 순위를 정하되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적으로 앞 번호를 배정받았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는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도 포함되므로, 이들은 무소속보다 앞 번호를 받는다. D 방식 역시 의석 있는 정당, 의석 없는 정당, 무소속의 순서이므로 마찬가지다. 따라서 ⑤는 두 방식 모두에서 성립한다. 오답: ①A 방식은 추첨으로 기호를 배정하므로 성씨와 무관하다. 명칭의 가나다순이 쓰인 것은 B 방식의 3순위 이하 정당이다. ②B 방식은 의석 순위대로 1, 2를 배정하므로 2순위 정당이 기호 1을 받을 수 없다. ③C 방식은 선거구별 추첨이므로 같은 정당의 후보자라도 선거구마다 기호가 달라질 수 있다. ④B 방식에서 4순위 정당은 명칭 가나다순에 따라 순서를 받고, D 방식에서는 의석 수 순위에 따라 받으므로 두 기호가 같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A 방식과 전국 통일 추첨제로의 변경(~"변화하였다.") ② B 방식의 내용과 문제(~"안고 있었다.") ③ C 방식과 그 구조적 문제(~"문제가 있었다.") ④ 현행 D 방식(~"결정한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A: (로마자) / B: (상위 2) / C: (무소속) / D: (가나다)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게재 순위' =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싣는 차례. 채점 포인트: '용지에 적히는 순서'라는 구체적 뜻을 담았는가. 그 순서가 곧 기호가 된다는 점까지 적으면 좋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네 가지 방식(A·B·C·D)이 시기별로 갈아 끼워지는 회차입니다. 방식별로 '추첨인가 순위인가', '무소속은 어디인가'를 표의 두 칸으로 정리하면 선지가 한눈에 갈립니다. 방식을 한 칸 옮겨 놓은 ①·④번이 급소.